

#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5월 15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동부농업기술센터 액비 실습교육-13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주간농사정보-10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한라봉과 감귤로 빛은 전통주 완판 행진 '관심' -4면	-	제주일보
○	“마늘 수확 일손돕기 함께 해요” -6면	-	한라일보
○	한풀 꺾였던 서귀포in정 올해 들어 매출액 반등-7면	-	제주매일

(제민일보: 2026년 5월 15일)

○ 동부농업기술센터 액비 실습교육-13면



## 동부농업기술센터 액비 실습교육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13일 구좌읍 일원에서 동부친환경농산물연구회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C.P.K. 액비 활용 방법 및 제조 실습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액비 제조와 올바른 사용법을 통해 작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공유했다.

5. 15.  
제민일보 13

(제민일보: 2026년 5월 15일)

○ 주간농사정보-10면



## 주간농사정보

### ◆ 병해충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

- 노지감귤
- 병해충 관리: 꽃 70% 정도 낙화 시 잿빛곰팡이병 적용 약제 살포
- 만감류
- 온도: 낮 최고 온도 28도 이하 유지
- 물관리: (개화기~만개기) 7일 간격 15~20t/10a 관수  
(종화기~1차 생리낙과) 5~7일 간격 20t/10a 관수
- 병해충 관리: 총채벌레·진딧물 등 예찰 후 조기 방제, 종화기 잿빛곰팡이병 적용약제 1~2회 살포하며 시설내 환기 철저
- 키위
- 신초관리: 지면을 향하거나 꽃봉오리 없는 가지 등 불필요한 어린 순 제거
- 병해충방제: 궤양병은 낙화기까지 10일 간격 적용약제 교호살포

- 초당옥수수
- 물관리: 이삭수염 출현 후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수분 관리 철저
- 병해충 관리: 나방류 등 예찰 및 방제 - 나방류 유충 발생이 확인되면 해뜨기 전에 적용약제 줄기와 잎에 골고루 살포
- 단호박
- 터널비닐 제거하며 건실한 아들줄기 2~3본을 양쪽으로 유인
- 웃비료: 요소·염화칼리 각 20kg/10a를 식물체와 가까운 고랑에 살포

### ◆ 표준시비 실천에 동참하세요

- 표준시비란?  
필지별 토양 양분상태를 분석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것
- 표준시비 도입 실증사업  
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 △양배추 43% △브로콜리 36% △양파 26% △마늘 53.2% 줄여도 수확량·상품성 차이 없었음

5. 15.  
제민일보 10

(제주일보: 2026년 5월 15일)

○ 한라봉과 감귤로 빛은 전통주 완판 행진 ‘관심’ -4면

## 한라봉과 감귤로 빛은 전통주 완판 행진 ‘관심’

### 제주수율·시트러스양조장 협업

제주산 한라봉과 감귤로 빛은 지역 한정 전통주가 입소문을 타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 전통주 전문 브랜드 제주수율은 시트러스 양조장과 공동 출시한 ‘마셔블랑 스프링 제주수율 에디션’ 1000병이 출시 5개월 만에 모두 판매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제주수율 3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첫 공식 협업 에디션이다. 제주산 한라봉과 감귤, 감귤꽃꿀을 활용한 과실주 ‘마셔블랑 스프링’을 기반으로 제주수율의 로컬 브랜딩 역량과 시트러스 양조장의 양조 기술을 결합해 제작됐다.

협업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수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협업 제품 출시 이후 ‘마셔블랑 스프링’의 평균 판매량은 기존 대비 2배 5.15. 제주일보 41한 월 200병 수준으로 확대

됐다.

제품 패키지에는 제주 정체성도 담았다. 브랜드 캐릭터 ‘술하르방’을 적용하고 한라산 백록담과 탐라계곡 이미지를 활용해 ‘제주의 물로 빛은 술’이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강조했다. 특히 판매 채널을 제주 현지 오프라인으로 한정해 점이 소비자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에서만 살 수 있는 술’이라는 희소성과 여행 경험 요소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세미나와 학회, 기업 행사 등을 중심으로 단체 주문 문의도 늘고 있다. 제주 로컬 원재료와 지역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상품성이 기업 행사 답례품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수율 관계자는 “단순 판매를 넘어 제주 도내 양조장과 함께 로컬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협업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2026년 5월 15일)

○ “마늘 수확 일손돕기 함께 해요” -6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은 14일 마늘 주산지인 대정읍서 영농 지원 발대식'을 열고 농촌일손돕기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제주농협 제공

### “마늘 수확 일손돕기 함께 해요”

도·농협, 주산지 대정읍서 영농 지원 발대식  
단체·군부대·대학생 등과 고령농 중심 지원

“인력난이 심각한 농촌지역의 마늘 수확 일손돕기 함께 해요”.

제주도와 제주농협은 14일 마늘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정읍서 영농 지원 발대식'을 열고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한라일보 5.15

업인단체, 해병대, 보호관찰소, 자원봉사기관, 금융감독원,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와 농업인 등 200여 명이 함께 했다. 발대식 후에는 일대 마늘밭으로 이동해 수확 작업에 나섰다. 드론으로 관측한 올해 제주산 마늘 재배면적은 840ha, 생산예상량은

1만2608t이다. 면적 기준 전년(909ha) 대비 7.5% 감소하고, 5개년 평균(1267ha) 대비 33.6% 감소한 규모다. 마늘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과정이 기계가 아닌 농작업으로 이뤄지는 대표적인 작물로,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영향으로 면적이 빠르게 줄고 있다. 하지만 마늘 수확은 20일 안에 모두 끝내야 해 수확철마다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농협은 올해 행정기관, 군부대, 유관기관·단체, 대학생봉사단 등과 협력해 마늘 수확기와 감귤

수확기 등 제주지역 최대 농번기에 인력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 지원 목표는 연 6만명으로, 취약농가와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영농 부담 감에 나설 예정이다.

이춘협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은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 부족 문제는 농업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제주농협은 제주도와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촌인력 지원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매일: 2026년 5월 15일)

○ 한풀 꺾였던 서귀포in정 올해 들어 매출액 반등-7면

## 한풀 꺾였던 서귀포in정 올해 들어 매출액 반등

4월 현재 3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늘어  
만감류 소비축진 선봉 역할 속 역대 최고 근접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서귀포시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의 매출액이 올해 들어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1년 1월 15일 론칭한 '서귀포in정'의 연간 매출액은 첫 해 23억7600만원에서 △2022년 56억7000만원 △2023년 86억8000만원 △2024년 98억3000만원으로 매년 급격히 늘었다.

그러다 2024년 12월에 터진 비상계엄의 여파로 1월 매출액은 70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4월 현재 매출액은 36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억2800만원에 비해 31% 증가했다.

특히 카라향 기획전을 진행한 4월 한 달 매출액 4억6000만원은 전년 동기(1억6600만원) 대비 177% 늘었다. 3월 매출액 역시 5억2700만원으로 전년 동기(2억8200만원) 대비 87% 성장. 서귀포in정이 서귀포시 만감류 소비 축진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4월 매출액은 역대 최고

를 기록했던 2024년 동기 40억9600만원에 근접, 확연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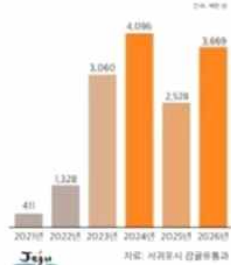
'서귀포in정'이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은 회원 수가 현재 10만 4000여 명에 이를 만큼 까다로운 품질 관리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물류 시스템 개선(통합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문 후 익일 배송 원칙을 지속하며 기존 관행거래에 비해 50% 이상 높은 수취가를 제공, 농가 신뢰를 얻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서귀포in정의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품질 서귀포 농수산물 소비자에게

서귀포in정 1~4월 매출액

단위: 서귀포in정 스키프리스터이 104,319명  
카테고리 22,587명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두성기자